

## 새 날을 기다리는 향일암

작은 불빛들

새벽 어둠속에서 반짝인다

임포항의 작은 불빛들이 새벽 어둠속에서 반짝인다.  
먼 곳에 있을 바다의 표정과 다가올 시간의 위대함이 잔잔한 파도 끝에 실려 오고,  
저 멀리 금오산 기슭에 향일암이 보인다.  
플랫폼의 어둠을 밝으며 향일암으로 오른다.

문이 되어버린 바위틈으로 독경소리가 들려오고,  
관음전 동백나무에는 달빛이 쌓인다.  
어둠을 빠져나온 발걸음들이 관음전 마당으로 모여든다.  
관세음보살의 시선을 따라 먼 어둠을 따라간 눈빛들이 하얀 입김을 쏘으며 일출을 기다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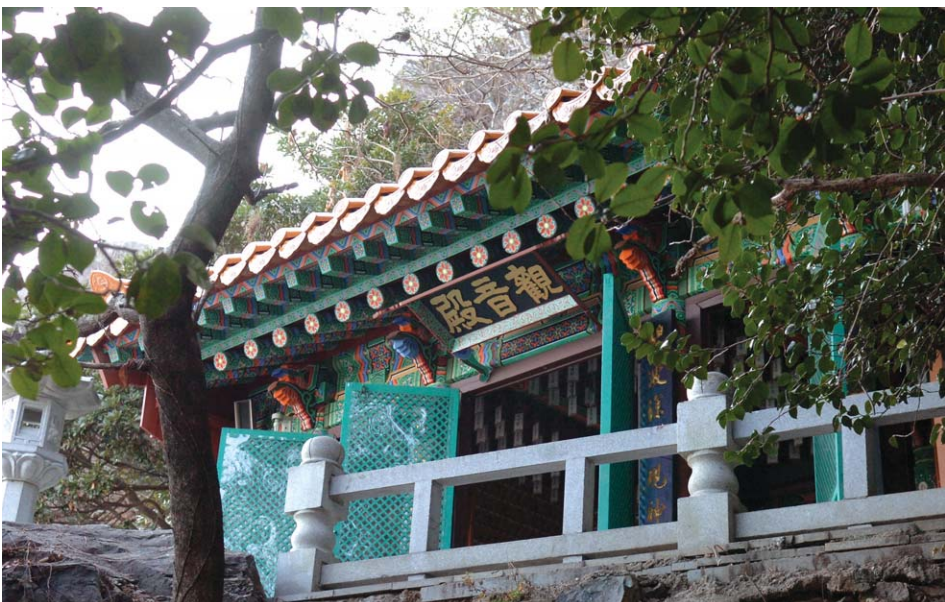
어느새 여명이 밝아오고 산새 한 마리가 고요하던 숲을 흔들며 깨운다.  
눈을 뜬 산새들이 소리에 소리를 물고 하늘로 날아간다.  
마침내 바다의 끝이 어둠에서 일어서고 기다리던 눈빛들은 힘차게 붉은 해를 끌어올린다.  
새아침이 밝는다.

잠 못 이룬 자의 길었던 밤도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아쉬운 날이 되었다.  
오늘밤 또 관음전 마당으로 달빛이 쌓이고 향일암은 누군가의 긴 밤을 새울 것이다.  
원효 스님의 좌선대 바위 위로 아침햇살이 다가와 앉는다.

글 · 사진=박재완 기자 wanihollo@hanmail.net

관음전 동백나무에  
쌓인 달빛

여명이 밝아오고  
산새 한 마리가 고요하던  
숲을 흔들며 깨운다



동일한의원  
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-14

# 코한방 (韓方)


코막힘, 비염, 축농증

## 코막힘 한방(韓方)으로 해결!!

코막힘, 비염, 축농증 답답하시죠?

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고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원에서 한방(韓方)으로 치료해 보세요!!

###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

 **한의학박사 원장 노동일**  
보건학박사  
전)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 
(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)

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-중-2672호

